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호

발행인 : 박종우

발행일 : 2022년 11월 2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가해자 말만 듣고 성희롱 없었다? 충주노동청 제대로 합시다!



가해자 말만 듣고 결론짓는 충주노동지청!

충북 음성에 있는 시너스텍이라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터졌다. 피해자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개별조합원이다. 올해 6월 충주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5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법 위반사항 없음’ 이었다.

충주노동지청은 사업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한 행위였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충주노동지청은 가해 사업장의 자체 조사결과와 회사측 입장에서만 증언한 몇몇 참고인 조사를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

피해자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때문에 모든 불합리한 상황마저 참았다. 업무와 상관없는 탕비실 청소, 커피 심부름, 개인 심부름, 얼굴 품평, 옷차림 품평, 지나가면 휘파람 불기, 남성 직원들과 강제 온천여행 등등. 피해자는 강압적

이고 폭력적인 회사 생활을 참지 못하고 어렵게 용기를 냈다.

그러나 충주노동지청은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다. 가해자들의 증언은 믿었고, 피해자의 증언은 증거가 없다며 묵살했다. 그 사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 나빠져 충북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금속노조가 함께 투쟁합시다!

사업장 안에서 혼자 금속노조 조합원인 피해자는 충주노동지청의 편파 조사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어디 하나 믿을 곳이 없다.

금속노조가 함께 해결하자.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시너스텍 괴롭힘·성폭력 사건 부실조사 충주노동지청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5시

△ 장소 : 충주노동지청 앞